

양현종 7연승, 더없이 든든한 토종 에이스

6이닝3실점 개막이후 7전 선발 전승 행진 연속 무사4구 44%이닝 만에 중단 아쉬움 이범호·최형우·안치홍 홈런 KIA 4연승



올해 최고 구위를 뽐내고 있는 '토종 에이스' KIA 양현종이 치열한 '어깨싸움'에서 한걸음 먼저 치고 나갔다.

해터, 맨캡(NC·이상 6승)과 다승 공룡 선두였던 양현종은 9일 kt 위즈를 상대로 시즌 7승을 거두며 다승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양현종은 이날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kt와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6이닝 5피안타(1홈런) 7탈삼진 3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KIA의 9-4 승리.

올 시즌 7전 전승을 거둔 양현종은 개인 단일시즌 최다연승 기록도 갈아치웠다. 지난 2010년 5월 1일 사지 롯데전부터 6월 2일 대구 삼성전까지 6연승을 기록했던 양현종은 7년만에 7연승을 달성했다. 지난해 10월 3일 kt전부터는 8연승중이다.

아쉬움도 있었다. 연속 무사4구 행진이 44%이닝 만에 중단된 것이다.

양현종은 6회초 선두타자 박승우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양현종은 시즌 첫 등판이었던 지난달 4일 SK 와이번스와 홈경기에서 2회 2사 후 김성현과 박승우에게 연속 볼넷을 허용한 뒤 이날 경기 전까지 39%이닝 동안 볼넷(4구)과 몸에맞는공(사구)을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KBO리그 최다 연속 이닝 무사4구 기록은 1986년 빙그레 이글스 소속 이상군이 세운 49이닝이다. 이상군은 그해 6월 8일 OB 베어스와 잠실 방문경기 더블헤더 2차전부터 7월 8일 잠실 OB전까지 무사4구 행진을 벌였다. 양현종은 이상군의 기록에 불과 4%이닝 모자란 상황에서 신기록 도전을 멈춰야 했다.

양현종은 또 46이닝 만에 시즌 첫 피홈런도 기록했다. 5회초 2사 2루에서 오정복에게 좌완 투런포를 얻어맞았다.

오는 14일 SK전 등판이 예정된 양현종은 이날 85개의 공을 던진 뒤 7회부터 마운드를 손염민에게 넘겼다.

양현종은 경기가 끝난 뒤 "다승이나 피홈런은 신경 쓰지 않았다"며 "연속 무사4구 행진 중단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승리보다는 이닝에 신경을 썼고, 첫 피홈런이야 언제든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지난 경기까지만 해도 무사4구 기록을 보지 않았었는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기록을 쟁겨냈다. 이번 아니면 언제 이런 기록을 세울까 싶어서 신경을 썼는데 아쉬우면서도 기록이 끊겨서 후련하기도 하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던지겠다"고 말했다.

양현종은 이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아침부터 비가 오면서 우천취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선블리 '내일 경기를 준비하자'고 생각했던 게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양현종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작구도 별로였고 변화구도 미묘해서 (김)민식이야 고생을 많이 했다"며 "나 때문에 혼자 4타수무안타로 부진했던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올 시즌 최고 구위를 선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초반부터 잘 했고 아픈데가 없다보니 공격적으로 피칭하는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며 "작년과 달리 타자들이 중요한 순간에 점수를 내주는 것도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엔 그렇게 득점지원을 못 받다가 올해 이렇게 잘 받다 보니 벌써부터 내년이 걱정된다"며 웃었다.

이날 KIA 타선도 뜨거웠다. 이범호가 시즌 1호 홈런을 터트린 것을 비롯, 안치홍과 최형우도 잇따라 홈런포를 쏘아올렸다.

2회초 kt에 선취득점을 내준 KIA는 2회말 곧바로 경기를 뒤집었다. 바나나디가 1사, 2루에서 중견수 키를 넘기는 동점 적시2루타를 터트렸고 이범기가 결승 희생플라이로 추가득점, 2-1로 리드를 잡았다. 이어 나지완은 중전안타로 주자를 불러들여 600타점 기록을 세웠다.

최형우는 2점홈런으로 사실상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최형우는 2사1루에서 kt 선발 정대현의 123km 슬라이더를 받아쳐 우측간 담장을 넘겼다. 시즌 7호였다.

KIA는 3회말에도 3점을 더 달아냈다. 김주찬이



9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kt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경기에서 KIA 양현종이 투구하고 있다.

좌전안타로 출루한 뒤 안치홍이 시즌 3호 홈런을 터트렸다. 정대현의 133km 작구를 친 안치홍의 타구는 왼쪽 담장을 훌쩍 넘겼다. 여기에 이범기의 1타점을 보태 KIA는 8-1로 점수차를 벌였다.

양현종이 5회 시즌 첫 홈런을 내주긴 했지만 KIA는 9-4 승리로 시즌 24승(9패) 선두를 달렸다. 2위 NC와는 3게임차였다.

이날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는 보슬비에도 불구하고 1만503명이 입장했다. 10일 KIA 선발은 김진우다.

최진화 기자

동성고 황금사자기 8강행 경동고에 8-1 7회 콜드승

동성고가 제71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주말리그 왕중왕전 8강에 올랐다.

동성고는 9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경동고와의 16강전에서 8-1 7회 콜드승을 거뒀다.

1회말 한준수의 중전안타로 선취득점에 성공한 동성고는 3회말에도 이범기의 우익수 키를 넘기는 2타점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냈다. 3-0으로 리드를 잡은 동성고는 5회말 대거 5득점하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동성고는 5회말 1사2루에서 박태훈이 우측간을 가르는 1루타를 터트리며 점수를 뽑았고 이어 김민호의 3타점3루타와 전정배의 1타점1루타로 8-0으로 앞서 갔다.

6회초 경동고에 1실점했지만 7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동성고는 콜드승으로 경기를 마쳤다.

김의준은 이날 5%이닝동안 90개의 공을 던지며 1피안타5탈삼진으로 경동고 타선을 틀어막고 승리의 기반을 닦았다.

동성고의 8강전 상대는 대전고를 4-3으로 누르고 올라온 안산공고다. /최진화 기자

호남대학교 스포츠산업인력개발원 스포츠레저 이벤트 개발 전문인력 모집

호남대학교 스포츠산업인력개발원이 오는 22일부터 '스포츠레저 이벤트 개발 전문인력과정'을 진행한다.

지난 2009년부터 6년째 실시되고 있는 호남대의 스포츠산업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스포츠산업진흥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개설된 '스포츠레저 이벤트 개발 전문인력과정'은 지역의 스포츠레저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미래 이벤트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10주간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스포츠산업·스포츠이벤트·스포츠마케팅 등 이론과 여수엑스포, 순천정월박람회 및 제주 레포츠 시설 현장실습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스포츠산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과 학생, 스포츠레저 및 이벤트 개발 관련 경영자 등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교육신청은 21일까지 호남대학교 홈페이지(<http://honam.ac.kr>)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기타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로는 호남대학교 스포츠산업인력개발원(062-940-3706)으로 하면 된다.

조규정 스포츠산업인력개발원장은 "이번 과정을 위해 스포츠산업관련 교수진과 현장CEO,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강사진으로 구성했다"며 "스포츠산업 관련 자영업자, 소기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관련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진화 기자

평창올림픽 최고 인기종목 '피겨' 60만원 입장권 경쟁률 62대1 기록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가 종목별 국내 1차 온라인 입장권 추첨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조직위는 "1차 신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좌석은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결승전 A석(60만원)으로, 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다음으로 많은 신청자가 몰린 좌석은 쇼트트랙 여자 1,500m와 남자 1,000m 결승 C석(15만원)으로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개회식 D석(22만원)은 경쟁률 36.3대 1로 인기를 끌었다.

종목별로는 쇼트트랙이 평균 경쟁률 9.4대 1을 기록했고, 개회식이 4.8대 1, 피겨가 3.4대 1, 스피드스케이팅이 1.9대 1, 폐회식 1.5대 1로 큰 관심을 끌었다.

반면 설상과 슬라이딩 등 비인기 종목은 1차 입장권 판매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

국내 1차 온라인 신청은 2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진행했으며, 이 기간 총 38만4,000장의 신청을 받았다. 조직위는 공인 인증된 주점 시스템을 통해 총 16만 2,000장의 입장권 당첨자를 결정해 공개했다.

입장권 당첨 여부는 조직위 공식 홈페이지(www.pyeongchang2018.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장권 당첨자는 21일까지 결제해야 입장권 구매가 확정된다. 결제는 비자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다.

조직위는 22일부터 1차 온라인 당첨자를 대상으로 좌석 배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9월 5일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2차 판매는 9월 5일에 시작한다. 11월부터는 주요 공항과 KTX역, 서울시청, 강원도청, 강릉시청 등 관공서에서 입장권 구매가 가능하다.

입장권을 소지한 고객은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올림픽 파크와 플라자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연함뉴스

추신수 데뷔 12년만에 통산 150홈런

오승환·김현수 휴식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메이저리그 데뷔 12년 만에 통산 150번째 홈런을 달성했다.

추신수는 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펠트 파크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텍사스의 8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0-4로 밀린 7회초 주격의 좌중월 솔로포를 날렸다.

추신수는 상대 투수인 좌완 브로드 핸드의 2구 체인 시속 14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좌중월 담장을 넘겼다.

추신수의 시즌 4호이자 통산 150호 홈런이다.

2005년 시애틀 매리너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추신수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이던 2006년 7월 29일 데뷔 첫 홈런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전반기 시애틀전에 이은 이틀 연속 안타·타점 행진도 이어갔다.

추신수는 이날 통산 120회 도루에도 성공해 '호타준족' 면모를 자랑했다. 이날 2타수 1안타(1홈런) 1볼넷 1타점 1득점 1삼진을 기록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38에서 0.243로 상승했다.

추신수의 활약은 1-5로 패한 텍사스의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텍사스는 이날 안타를 2개만 생산하는 빈타에 허덕였다. 샌디에이고는 홈런 3방을 포함한 10안

타로 텍사스를 두들겼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의 마무리투수 오승환(35)과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외야수 김현수(29)는 경기에서 나오지 않았다.

오승환은 팀이 마리아미 말린스에 9-4로 크게 이기면서 휴식을 취했다. 세인트루이스의 선발투수 우안 카를로스 마르테네스가 투·타 만능 활약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김현수는 이날도 '플레시 시스템'에 갇혀 3경기 연속으로 벤치를 지켰다. 볼티모어의 상대 팀인 워싱턴 내셔널스는 선발 투수로 좌완 지오 곤살레스를 내세우자, 우투수 상대로만 출전하는 좌타자 김현수가 출전 기회를 잃었다.

볼티모어는 워싱턴을 6-4로 꺾고 5연승을 질주했다. /연함뉴스

KLPGA 김해림·이정은 '양강체제'

부문성적 박빙...12일 NH투자증권 챔피언십서 격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는 요즘 김해림·이정은의 '2강 시대' 양상이다.

둘은 상급, 대상 포인트, 평균타수 등 웬만한 지표에서 1, 2위를 나눠 가지고 있다. 1, 2위 격차는 박빙이지만 3위와 차이는 꽤 벌어졌다.

올해 일정에서 20%밖에 치르지 않은 초반이지만 김해림·이정은가 구축한 '양강체제'는 뚜렷하다.

올해 누적 상급에서 2억원을 넘긴 선수는 김해림(2억9,298만원)과 이정은(2억4,763만만원) 둘 뿐이다. 3위 박민지(1억9,028만원)은 약 5,000만원 뒤져있다. 대상 포인트에서도 150점을 돌파한 선수는 이정은(157점)과 김해림(151점) 등 단 2명이다. 3위 김민선은 90점을 켜다.

둘은 기술적으로도 막강하다. 김해림은 평균타수 1위(69.95타)를 달리고 있다. 이정은은 0.1타자 2위(70.05타)에 올랐다.

버디 사냥 능력을 보여주는 라운드당 버디는 이정은(4.23개)이 김해림(4.17개)을 2위로 밀어내고 1위를 꿰찼다. /연함뉴스



김해림

이정은

김해림과 이정은이 다른 선수를 압도하는 부문은 '톱10' 입상이다. 둘은 올해 출전한 대회에서 한 번도 '톱10' 입상에 실패한 적이 없다.

이정은은 6개 대회 연속 '톱10' 입상 행진을 이어갔고 김해림은 5개 대회에서 6위 밖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김해림과 이정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용인 수원 필드(파72)에서 열리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세계남자골프 '빅3' 한자리에

12일 개막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출동

세계 남자골프 '빅3'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다.

두대는 오는 12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 TPC 스타디움 코스(파72)에서 펼쳐지는 미국프로골프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다. 세계랭킹 1위 데스틴 존슨(미국)과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그리고 3위 제이슨 데이(호주)가 모두 이 대회에 출전한다.

올해 들어 이들 '빅3'가 모두 출전한 대회는 지난 3월 벨 매지 플레이 딱 한 번 뿐이다. 이들 '빅3'가 스타트로 박스 대회에서 대결하는 것은 이번대회가 올들어 처음이라는 예기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메이저대회 못지않은 위상을 자랑하는 특급 대회다. 상금은 US오픈 다음이다. PGA챔피언십과 같고 마스터스와 디오픈보다 많다.



데스틴 존슨

로리 매킬로이

제이슨 데이

출전 선수 면면도 화려하다. 세계랭킹 25위 이내 선수 중에 토머스 피터스(벨기에)만 빼고 24명이 출전한다.

세계랭킹 1위 군하기에 나선 존슨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첫 우승에 도전한다.

매킬로이는 결혼식을 올린 뒤 첫 출전이다. 지난달 24일 6억원을 들여 조호와 결혼식을 지른 매킬로이는 새로운 마음으로 대회에서 나선다.

데이는 사상 첫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연함뉴스